

# 노자의 미학적 관점으로 본 전통공간의 해체적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pace Analyzed by Aesthetic Idea of Lao-tzu

**Author** 이종희 Lee, Jong-Hee / 정회원, 서일대학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김지은 Kim, Ji-Eu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박사수료\*

**Abstract** This paper has tri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by deconstructive concept through connecting Lao-tzu's theory, the main discourse of East and West, with Derrida's deconstructionism theory. Derrida's philosophical term of differance(différance) is similar to Tao of Lao-tzu. It is because Derrida emphasize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by trying the strategy of overcoming dichotomous thinking by this term. Tao of Lao-tzu also has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concluded by one sole meaning. Like this, Derrida and Lao-tzu are against traditional and dichotomous way of thinking.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set Derrida's deconstruction theory and Lao-tzu's thinking as the common viewpoint of this world. And through the phrase of Tao Te Ching which means deconstructive Tao, deconstructive space design vocabulary was derived as mixed no-boundary, shape of no-shape,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The deconstructiv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pace by case study analysis of Lao-tzu's deconstructive space desig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ot a specific or detailed shape but an unlimited possibility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else, moving and changing endlessly and has a borderless beauty. Second, it is nothing itself but creates various shapes, as if it exists without shape. Third, it is a relative and unlimited space and pursuits a free form as a non-conceptual shape without any system or value.

**Keywords** 노자, 데리다, 해체, 도(道), 차연(差延), 전통공간  
Lao-tzu, Derrida, Deconstruction, Tao, differance(différance), Traditional Spac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논문은 동·서양의 대표 담론이라 할 수 있는 노자(老子, B.C 6세기경)의 사유를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해체주의 이론과 연결하여,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을 해체적 조형어휘의 관점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최근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노장(老莊)과의 철학적 연계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결과, 데리다의 철학방법론을 통해 동양의 노장철학이 형이상학적, 자연적 진리를 말해주는 사유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sup>1)</sup>

해체이론은 '텍스트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텍스트(Text)'라는 말은 '옷감, 직물(textile)'과 어원을

같이 한다. 옷감이 한 가닥의 실만으로는 짜여 질 수 없고 씨실과 날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짜여 지는 것처럼, 텍스트 이론은 이 우주 전체가 씨실과 날실로 이루어진 옷감처럼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얽혀있는 관계로 짜여져 있다고 본다. 한편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은 특정한 장이 주이고 다른 장이부가 되어 계층적이며 통합적인 구조를 갖지 않고, 각 장은 텍스트의 그물이고 텍스트의 직물 짜기로써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 '흔적', '놀이' 등의 철학 용어는 노자의 '도(道)'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데리다는 이 용어들을 통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전략을 시도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증시하였는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ekim@kookmin.ac.kr

\*\* 본 논문은 2011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노장철학을 서구의 해체론과 접속시키려는 시도는 김형효 교수의 선구적인 작업으로부터 촉발되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 가장 활성화되었다.

데, 노자의 도(道) 역시도 단가적인 하나의 의미에 귀결될 수 없는 관계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리다와 노자는 전통적, 관습적 사유, 이분법적 개념화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일반적 공통분모에 대해 도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데리다의 해체이론과 노자의 사유를 이 세계를 바라보는 공통의 시각으로 설정하고 노자의 해체적 조형어휘로부터 한국전통공간의 해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데리다가 제기한 ‘차연(差延, différance)’으로 대표되는 해체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노자의 ‘도(道)’와 도덕경 81장 전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1장과 2장을 분석하여, 노자의 사유와 해체주의 이론의 논리가 유사성이 있음을 알아본다.<sup>2)</sup> 또한 노자의 도덕경 각 장의 내용 중 해체주의적 특성과 연결이 가능한 구절을 인용·해석한 후, 전통건축의 해체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적 조형어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건축물로는 해체적 특성이 가장 잘 부합되었다고 판단되는 전통누각(樓閣)건축을 선정하였다. 누각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건축이다. 보는 시점과 방향에 따라 건물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지니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다른 건물과 관계를 통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잠재성이 강한 건축이기 때문에 전통건축의 해체적 특성을 분석하는 합당한 건축물로 판단되었다. 선정된 사례는 각각 궁궐, 서원, 사찰을 대표하는 연구적 가치가 있는 누각으로서 경복궁 경회루, 병산서원 만대루, 부석사 안양루이다.

<표 1> 사례 분석의 범위-조선시대 전통누각(樓閣)

건축물 명	건설 시기	규모	문화재 지정
경복궁 경회루	1412년	정면 7칸, 측면 5칸	국보 224호
병산서원 만대루	1572년	정면 7칸, 측면 2칸	사적 260호
부석사 안양루	조선후기	정면 3칸, 측면 2칸	-

각 장 도덕경 구절의 한글 뜻풀이는 최진석이 쓴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sup>3)</sup>의 해석을 인용하였다.

## 2.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노자사상

### 2.1.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의 탈피

데리다의 해체철학은 형이상학적이고 택일적인 이분법

의 사유구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분법적 사유구조란 형이상학이 만들어놓은 유(有)와 무(無), 선(善)과 악(惡), 시(是)와 비(非), 주체(主體)와 객체(客體) 등의 모든 대립적인 개념과 가치의 위계질서를 뜻한다. 형이상학적 사유구조에서 이 대립의 한쪽은 언제나 중심에 위치하고, 다른 한쪽은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중심은 존재적, 가치적, 논리적으로 주변에 우선하는 근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데리다의 해체는 어떤 중심도 거부한다. 해체의 기능은 중심들의 사이와 간격에 위치한다. 그래서 해체의 모습은 언제나 ‘두 얼굴(兩面)’을 지향한다. 이 양면성으로 해체는 하나로 모음<sup>4)</sup>의 불가능성을 지시한다.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모으는 사유를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라 부르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데리다의 해체철학이 반(反)-로고스중심주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로고스중심주의는 과거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중심점을 찾고 판단 기준을 정하며, 진리를 확실하게 하고 작자의 의도를 정당화 하거나 또는 텍스트의 핵심적 의미를 밝히려는 사고의 체계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in the beginning was the Word)”와 같이 로고스중심주의에는 신, 자기 및 우주 질서에 대한 신앙이 수반되어 다중적이고 비결정적이라기보다는 단일적이고 결정적인 것에 특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sup>5)</sup>

전통적으로 언어기호의 두 가지 물리적 표현방식은 음성(목소리, 말, speech)과 문자(글자, 글씨, writing)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로고스와 진리, 말은 같은 길을 감을 알 수 있는데, 동양철학에서 말 중심주의는 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子曰)”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공맹(孔孟)의 ‘말하기(曰)’ 철학은 제자들에게는 ‘듣기(聞)’의 철학이 된다. 이때 말씀은 사람들이 추구해야할 진리이고 의미가 된다. 그러나 노자의 경우는 다르다. 노자는 ‘老子曰’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여, 말해진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지 않는 ‘보기’의 철학, 즉 문자의 세계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체와 노자사상은 형이상학적 현존에 집착을 초래할 수 있는 로고스적 모으기의 사유를 비판하고, 차이의 측면을 중시하여 어떤 중심도 부정하여 흠뻑된다.

### 2.2. 차연(差延)의 타자성(他者性)

데리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차이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차이’라는 말 대신에 ‘차연’이라는

2) 본 연구는 해체적 사유를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불교, 노장(老莊)철학이라 분류하는 김형효의 철학편력을 바탕으로 전개함을 밝힌다.  
3) 1973년 출토된 BC 2세기 한나라 때의 백서본 <노자> 2종, 1993년 발굴된 전국시기의 죽간본 <노자> 등 새로 발견된 판본을 비교 분석하면서, 노자의 원래 음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뽑아 저자 자신만의 텍스트를 확정하였다.

4) 로고스(logos)의 어원인 그리스어 ‘legein’은 ‘모으다’를 뜻한다. 또한 로고스는 하나로 모아진 ‘진리’,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5) 오열근, 포스트모던조직론과 노자의 도덕경:해체(차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제26호, 2010.6  
6) 김상래, J.Derrida의 해체주의와 노자사유의 독법(1),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제18호, 1999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데리다가 생각하는 텍스트(text)는 책(book)과 다르다. 책이 말의 세계라면 텍스트는 문자의 세계이다. 텍스트 속에 있는 문자는 자기의 의미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말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텍스트의 해독은 서로 다른 이질적 요소와의 변별적 차이나 다른 텍스트와의 변별성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타자(他者)와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이를 데리다는 ‘텍스트의 차연’이라 불렀다. 차연으로서의 텍스트는 언제나 다른 텍스트에 열려있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차연(差延, différance)은 ‘차이(差異, différence)’와 ‘연기(延期, deferral)’의 합성어로서 독일의 하이데거가 가장 먼저 쓰고, 이어서 프랑스의 데리다가 차용하였다. 프랑스어에서는 ‘différer’가 ‘차이 나게 하다·연기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함의하는데, 명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낱말이 없어서 데리다가 만든 말이 ‘차연’이다. 프랑스어에는 오직 ‘차이’를 가리키는 ‘différence’만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로 차이의 ‘différence’나 차연의 ‘différance’는 발음이 똑같다. 그것은 차연이 차이를 긍정하면서 차이로써 세상이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차연은 차이가 모순 대립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으로 왕래하면서 생멸(生滅)을 주고받는 동거 관계임을 암시한다. 즉 차연은 차이를 유지하면서 서로 동거하는 이중성의 불일이불이(不一而二)<sup>7)</sup>관계를 뜻한다.

그래서 데리다는 이러한 차연의 이중공정을 다른 말로는 교직성(textuality)이라 부르고, 책과 다르게 텍스트라고 하였다. 즉 이 세계는 신이 제조적인 이성으로 기승전결의 구조로 쓴 역사책이 아니라, 서로 상반된 것들이 중중무진하게 엮여 있는 그물의 얽힘과 같다는 것이다.<sup>8)</sup> 데리다가 차연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차연의 본질은 없다. 차연은 결코 차연의 나타남 또는 그것의 명칭 같은 것으로 고유화 될 수 없다.<sup>9)</sup>

차연은 하나의 명칭이 아니고, 하나의 수수한 명목상의 실체도 아니고, 차연은 차이하게 하고 연기시키는 대체용어들의 연쇄 속에서 끊임없이 이탈한다.<sup>10)</sup>

차연은 있지 않고, 실존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현존적 존재도 아니다.<sup>11)</sup>

이처럼 차연은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어라 이름붙일 수 있는 것조차 아니다. 그것은 차이와

연기를 지시하는 임시적인 말로서 언제나 흔적(trace), 보충대리(supplement), 산중(dissemination)등의 다른 말로 대체된다.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차연은 노자 사유의 도(道)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 2.3. 노자의 도(道)에 대한 해체주의적 이해

### (1) 이전의 중용인 도(道)

유학의 도(道)는 구성적(constructive)인 반면 노자의 도(道)는 해체적(deconstructive)이다.<sup>12)</sup> 노자사상에는 데리다의 차연(差延)과 같이 중심을 거부하는 해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음 도덕경 1장의 내용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 常有, 欲以觀其邀.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 도덕경 1장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 무를 가리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유를 가리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이 둘을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로다.

도덕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1장은 도(道), 무(無), 유(有)라는 세 개의 범주를 통해서 노자의 세계관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 데리다의 해체이론을 경유하면서 노자가 말한 도(道)는 신비스럽고 현묘하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道)가 무엇인가?’ 라는 가상적 물음에 노자가 ‘도(道)란 ~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道)를 특정한 내용으로 정의하여 개념화할 수 없는 이유는, 도(道)가 현상계를 초월해 있거나 신비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본질을 규정하는 식의 언어 행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인간을 정의한 것은 ‘인간’을 ‘이성’이라는 본질 안에 가둔다. 그러나 노자가 보기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반대편을 향해 열려 있고, 반대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 즉 동일성과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본질’을 근거로, 다른 것들과 격리·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가치는 아무 것도 없다.<sup>13)</sup> 이는 해체주의 철학의 기

7) 원효가 피력한 사이나 경계, 즉 서로 상보적이고 보충대리적인 의미작용의 관계를 말한다.

8) 김형효, 사유나그네, 소나무, 2004, pp.55~56

9)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25

10) 위의 책, p.26

11) 같은 책, p.6

12) 이는 김형효 교수의 동서철학을 구성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로 구분하는 방식에 근거한 표현이다. 그에 따르면 우주에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고 이를 추구하는 구성적 사유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기독교 철학, 유학이 속하고, 반대적 입장의 해체적 사유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불교, 노장철학이 속한다.

본 전제인 기표의 파기를 주장하는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 데리다의 용어를 빌리자면 ‘구멍내기’의 의미작용의 정의 내리기를 폐기하려는 ‘차연’의 선언으로 표현될 수 있다.

노자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반대편 것<sup>14</sup>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존재 근거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상대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반대편을 향하여 계속 변화한다. 관계 속에 있고, 변화 속에 있는 사물을 어떠한 정의를 내림으로 본질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이다. ‘도(道)’는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도록 부여된 ‘기호’에 불과한 것이다. 노자는 묘한 경계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無)’라는 범주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무는 ‘비어있음’의 의미이며, 비어있는 공간은 구체적인 사물을 비로소 존재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교차점’ 같은 것이다. 한편 유라는 범주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자신만의 경계선(徼)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반대되는 무(無)와 유(有)는 동출(同出), 같이 나와 있는 것으로써 무가 먼저이고 유가 나중인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관계이다. 이를 밑바탕으로 하여 노자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만물이 들락거리는 ‘문(門)’이라 하였다. 문은 들어가고 나감이 교차하는 ‘묘한 공간’으로 시발이나 종착이 아닌 환승(Trans)의 의미로 들락거리는 ‘묘한 경계’이다.<sup>15</sup>

이렇듯 도는 항상 무의 계열과 유의 계열로 대표되는 두 가지 실로 짜여진 상태이다. 이는 어느 한쪽으로 결정 불가능한 모든 차이의 변별과 양가성의 동거를 가능케 하는 선형적 능력인 데리다의 ‘이전(以前)의 중용(中庸)’<sup>16</sup>과 다르지 않다.<sup>17</sup>

## (2) 유무의 대대적 차연

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較，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恒也。-도덕경 제2장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해 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뤄주며,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며, 음과 성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니 이것이 세계의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도덕경 2장은 1장의 유무(有無)적 세상 보기를 더 구체화한다. 2장은 유(有)의 존재가 차연(差延)적 순행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이 구절은 노자가 단가적 흑백 사유를 도(道)의 차원에서 거부한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도(道)는 흑백의 단가적이고 이분법적인 태일이 아님을 여기서 더욱 분명히 제기하고 있다. 융(Jung)의 심리학이 가르쳐주듯 모든 심리 현상은 양가적이다. 의식적 가상인 페르소나(persona)는 필연적으로 그 무의식의 그림자로서 페르소나와 다른 그림자(shadow)를 품고 있다. 미(美)와 선(善)은 그 그림자로 추(醜)와 불선(不善)을 필연적으로 함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흔적을 갖고 있는 양가적인 것을 데리다는 파르마콘(pharmakon)에 비유하여 약(藥)의 이면이 독(毒)이고, 독(毒)의 이면이 약(藥)임을 해체적 세상 보기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이렇게 노자는 모든 존재의 현상을 대대(待對)법으로 보도록 종용한다. 그런 대대법이 유무(有無), 난이(難易), 장단(長短), 고하(高下), 음성(音聲), 전후(前後)의 이중성들이다. 노자는 이것들을 모두 한 쌍의 연생(緣生)으로 읽어야 한다고 술회한다. 그 연생이 우리가 앞에서 본 데리다의 차연(差延)이다.

노자는 그런 만물의 존재 방식을 ‘혹행혹수(或行或隨,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함), 혹은혹취(或响或吹, 약하게 코로 숨쉬기도 하고 입으로 강하게 불기도 함), 혹은혹리(或强或羸, 강력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함), 혹은혹휴(或載或隳, 신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함)’라고 읊었다. 만물은 단독적 자생(自生)이 아니라 반드시 상반된 것과의 상관성을 대대법적으로 띠고 있는 연생(緣生)임을 밝힌 것이다.<sup>18</sup>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환원 불가능한 두 개의 실체를 완전히 분리 시켜 놓았다. 정신이 정신인 이유는 정신 그 자체에 있고, 물질이 물질인 이유 역시 물질 자체에 있다. 그러나 노자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무와 유는 서로 상대편의 존재 근거가 되면서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쉽고 어려움, 길고 짧은 것, 높고 낮은 것도 유무의 관계처럼 이해해야 하며, 앞과 뒤로 마찬가지로 두 위치의 비교 속에서 어떤 위치가 앞이 되기도 하고 뒤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노자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반대편인 것과 대대적 차연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된다. 모든 것은 반대편을 향해 항상 열려있다. 반대되는 것들이 꼬여서 이루어진 것이 ‘도(道)’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대립 쌍들은 서로 꼬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주의 존재 원칙(恒)이자 법칙(常)이고, 이런 존재 형식 내지는 원칙에 도라는 기호를 붙인 것이다. 도는 이 세계의 발생 근원도 아니며 실체도 아니다.<sup>19</sup>

## 3. 노자의 해체주의적 공간조형사상

지금까지 노자의 도(道)가 해체주의의 차연(差延)과

13)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1, p.23  
 14) 노자가 보기에 이 세계는 무라는 범주로 설명이 되는 영역과 유라는 범주에 담기는 영역이 서로 꼬여있는 관계로 되어있다.  
 15) 최진석, 위의 책, p.32  
 16) ‘이전의 중용(le milieu anterieur, the prior midium)’은 ‘차이 나게 하는 힘과 선형성’을 뜻하는 데리다의 철학용어이다. -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p.118  
 17) 김상래, J.Derrida의 해체주의와 노장사유의 독법(1), 한국동서철학회는문집 제18호, 1999

18) 김형효, 사유나그네, 소나무, 2004, p.28  
 19) 최진석, 위의 책, pp.38~40

맞닿아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노자의 도를 해체론적 의미를 갖는 것에 동의하여 2장의 내용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덕경 텍스트에서 도(道)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구절로부터 도출된 어휘를 해체주의적 공간조형사상으로 보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 3.1. 유무상생(有無相生) - 혼재된 무경계



<그림 1> 이정 통죽도

조선중기 묵죽화가 이정(李霆)은 통죽도를 통해 그림자와 같은 대나무에 사실적 마디와 잎으로 유(有)와 무(無)를 동시에 실현하여 생생함을 구현하였다.

앞서 도덕경 2장의 해석에서 살펴 보았듯이 유무상생(有無相生)은 유는 무를 살려주고, 무는 유를 살려준다는 의미이다. 노자는 이처럼 이 세계를 반대되는 것들이 꼬여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道)’라는 기호를 붙였다.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sup>20)</sup>라고 하였다. 이렇듯 만물의

존재는 차연(差延)처럼 생멸(生滅)과 멸생(滅生) ‘사이’의 왕래이며 순행으로, 일의적인 개념으로 잡히지 않는다. 편의상 만물을 차이로써 표시하지만, 만물의 존재 방식은 반(反)개념적인 이중적 애매성으로 짜여 있다. 노자의 도는 시작이 없는 시작부터 이중성의 상호 보충대리 관계로, 차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유무의 관계도 반(反)개념적 차연의 사이로 본다. 왜냐하면 차연이 가능하기 위하여 적어도 이가(二價)를 한 단위로 생각해야 하는 이중성이 요구되며, 그 이중성은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연기를 힘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 -도덕경40장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노자는 유와 무가 꼬여있는 ‘도(道)’를 ‘황홀(恍惚)’이라고 표현했다.

道之爲物，惟恍惟惚. 惚兮恍兮，其中有象. 恍兮惚兮，其中有物. 窈兮冥兮，其中有精. -도덕경 21장

도라는 것은 오로지 황홀하다. 황홀한데도 그 가운데 형상이 있으며, 황홀한데도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 아득하고 어두운데도 그 가운데 정기가 있다.

유무상생의 공간은 어떤 특정하고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전이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모습이다. 또한 살아 생동하는 생명성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다양성을 지닌 황홀(恍惚)한 공간이다. 이러한 황홀한 공간은 ‘혼재된 무경계’의 형식으로 발현된다.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공존할 때 이는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닌 비유비무(非有非無)의 형식이 된다. 즉 경계선 상에 존재함으로 서로가 계속 이쪽저쪽을 넘나들어 흘러가는 주변과 상대적 형식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공간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관계 맺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또한 각기 개별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여 혼재하는 무경계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이러한 혼돈의 공간은 만색이지만 비어있는 색으로 동시에 서로 하나가 되는 조화 속에서 발현되는 구조이다. 마치 공간 속에 비어있는 서로가 그림자로 섞이며 빛을 가지고는 있지만 스스로는 빛을 내지 않는 달빛과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 3.2. 대상무형(大象無形) - 무형상의 형상

앞서 유무의 관계로 살펴보았듯이 노자의 도(道)는 상반된 것끼리 반복 교차하는 운동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학적 법칙인 ‘만(卍)’과 같다. ‘卍’자는 두 개의 교차하는 흔적(有)과 그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의 흔적(無)이 동거해 있는 모습이다. 즉 노자의 도는 양 계열의 교차배어법이며 이중긍정(both-and)과 이중부정(neither-nor)의 변화 반복법과 같다.<sup>21)</sup> 차연으로서의 도는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음의 도덕경 구절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써 흔적(物)과 공간(無)의 동거관계로 볼 수 있다.

大器晚成，大音希成，大象無形. 道隱無名. 夫唯道， -도덕경 41장

큰 그릇은 완성되지 않으며 큰 음은 소리가 없고 큰 형상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도는 감추어져서 이름이 없다.

其上不皦，其下不昧，繩繩不可名，復歸於無物，是謂無狀之狀，無物之象. -도덕경 14장

그 위도 밝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아니하며, 까마득하여 이름 할 수 없는지라 다시 아무 것도 없음으로 돌아가니, 이를 일러 모습 없는 모습과 형상 없는 형상이라 한다.

노자의 최고 개념인 ‘도(道)의 공간’은 ‘대상(大象)의 공간’이다. 크다(大)의 의미는 단순히 Big과 같은 크기가 큰 의미를 넘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Infinity와 같은 무한대를 의미한다. 대상(大象)의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모습(無狀之狀)’, ‘형상 없는 형상(無物之

20) 老子, 道德經 제40장 : 反者, 道之動.

21) 한국도가철학회, 노자에서 테리다까지, 예문서원, 2002, p.301

象)과 같이 변화무쌍한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그림 2> 달 향아리

생명 자체의 원리를 아름다움으로 보았던 동양인에게 생명의 표현이란 곧 예술의 이상이었다. 비어 있는(虛) 상태는 무형(無形)이기에 본질적인 개념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 얽힌 연결적 존재이며, 한 개체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무형으로서 스스로 생명(自生)의 상태를 만들어

자유자재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자의 해체주의적 조형의식은 '무형상의 형상'을 두 번째 특징으로 한다. 백토로 빚어진 무의 색(無色)과 추상의 형태(無形)로 이룬 조선의 달 향아리처럼 마치 빛나는 검은 구멍처럼 빛과 어둠이 혼재되는 상태와도 같이 변신과 변형을 거치는 것보다 스스로 아무 것도 아니면서도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내는 비(非)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형식이다.

### 3.3.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 시·공간의 초월

노자는 자연에 따라 행위 하는 것을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sup>22)</sup>,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 하였다. 자연의 근본 원리인 생명(生命)은 세포의 분리와 융합처럼 경계가 없으면서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동시적 존재이다. 마치 물처럼 유동하며 비어있으면서도(無) 차 있는(有) 동시적 속성으로 서로 통하기도 하며 갈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위이무불위의 형식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적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생명력과 운동성의 강조를 통한 유한에서 무한적 생명을 도출하여 미완성의 자연을 완성시키는 추상적 리얼리티의 추구로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자의 도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데리다의 용어를 빌리면 무위와 무불위의 산종(散種, la dissémination)이요, 보충대리(補充代理, la supplémentarité)이다. 즉 도는 시작이 없는 시작부터 하나의 일점기원이 아니고, 언제나 이미 둘로 쪼개진 틈이며 갈라진 가위의 텅 빈 사이 같다. 천지 사이는 마치 풀무처럼 텅 비어 있다. 그런데 그 작용력은 무공무진하다. 풀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큰 바람이 나오듯이 이 천지 사이도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에서 만물의 모든 생명 과정이 진행된다.

道沖而用之或弗盈. 淵兮! 似萬物之宗. 湛兮! 似或存. - 도덕경 4장

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깊기도 하구나! 마치 만물의 근원 같다. 신비롭기도 하구나! 마치 진짜로 있는 것 같다.

22) 老子, 道德經 제37장 : 道常無而爲無不爲,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림 3> 추사 조각난도

추사는 조각난도에서 자유로운 방필(放筆)로 그림자와 같은 무위의 난화를 그렸다. 그린바 없는 열은 획으로 실제의 난초보다 지극한 향과 영원의 생명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이 도의 공간은 유위(有爲)적 조형만으로는 이룩하기 힘든 세계이며, 무위(無爲)의 조형만으로도 이룩할 수 없다. 유위인 동시에 무위로써, 유위도 극복하고 무위조차 초월하고자 한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로써 가능해 진다.

이러한 자유로운 형식은 '시·공간의 초월'을 통해 공간으로 발현된다. 시간이란 공간과 물질에 의해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간은 곧 공간이 되며, 공간은 물질의 운동과 변화로 곧 시간이 된다. 자연에서의 시간은 세세생생(世世生生)하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의 시공연속체를 이루는 영원한 지금이 된다. 이러한 세계는 끝이 있고 소실점이 있는 원근도법의 서양화와 달리 중심이 여러 곳이므로 소실점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중심 역시 가변적이므로 무(無)나 공(空)으로 화(化)한다. 즉 무위이무불위의 공간은 한정된 모습과 고정된 실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실상인 공계(空界)의 모습으로, 실체가 있으나 변화하며 이어지는 무시무공(無時無空)의 상대적 무한 공간이다. 또한 어떤 체계도 가치도 없는 비개념적인 모습으로 특정한 형식으로 말할 수 없는 자유로운 활발발(活潑發)한 형식을 추구한다.

### 3.4.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 어휘

차연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도(道)의 의미를 통해 도출된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 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2>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 어휘

도(道)의 의미	유무상생(有無相生)	대상무형(大象無形)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해체적 공간조형 어휘	혼재된 무경계	무형상의 형상	시·공간의 초월
공간 형식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형식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형식	자유롭고 활발발한 무한 형식

이러한 분석틀로 전통누각(樓閣) 건축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전통공간의 해체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 4. 사례를 통한 전통공간의 해체적 특성

### 4.1. 경복궁 경회루

한국의 고건축은 축소된 하나의 우주로서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고자 했다. 경회루가 상징하는 우주의 의





<그림 4> 경회루-국보224호

미 역시 유사한 것으로 천지(天地)의 원리를 터득한 천중(天中)의 공간에서 정사를 펼쳐 밝고 창성하려함을 환영의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치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연못 한 가운데

에서 환영으로 존재하는 듯한 경회루는 전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워 육중하지만 고요히 떠 있는 듯 서 있다.

노자의 도로 대변되는 무와 유는 인과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 얽힘의 보충대리이다. 그래서 허공은 비어 있기에 무위(無爲)하지만, 이미 그것은 모든 경험적 흔적들로 하여금 자연의 놀이를 가능케 하는 힘을 갖고 있기에 무불위(無不爲)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또 반대로 모든 흔적들은 상호간 자연의 놀이를 할 때 그 사이에 허공의 간격을 전제하고 있다. 즉 빈 곳이 없는 흔적들의 차연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회루는 점과 선 그리고 허공으로 만들어진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를 비추는 환영 같은 건축이다. 하늘과 건축이 합일(合一)된 듯 장엄함과 텅 비어 있음의 대비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 순수하고 단순한 본성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여 점과 선만으로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정신을 추구한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삼광(三光)을 뜻하는 세 개의 다리를 건너면 48개의 기둥과 천장, 기단부의 섬, 연못과 담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5중적 켜로 이룩되었으나 인간이 만든 물질적 환경은 아무 것도 없이 느껴진다. 또한 섬과 물, 담과 건물의 평면까지 사각으로만 구획된 통층(通層) 구조로 음양의 양의(兩儀)를 말하는 좌우 문(門)이 있다. 동쪽 문은 일출(日出), 서쪽은 일입(日入)이라 적혀있어 태양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임을 상징하고 있을

<표 3> 경북궁 경회루의 해체적 특성 분석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 어휘	경회루 이미지	해체적 특성
유무상생(有無相生) -혼재된 무경계		3중적 공간의 비어있는 중첩으로 문의 열고 닫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형식을 갖는다.
대상무형(大象無形) -무형상의 형상		장중한 건물이지만 구름처럼 부유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환영과 같이 떠 있는 외관이다.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시·공간의 초월		세 겹으로 된 직선의 평면 틀로 비워서 만상을 담아낸 공간으로, 건축과 허공이 끝없이 투명한 무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

뿐 아니라 상징과 실체가 합하여 내부에서 태양과 달빛은 창호지 사이(間)로 들고난다.<sup>23)</sup>

계단을 통해 누(樓)에 오르면 사방으로 통하는 건축과 주변의 허공이 만들어 내는 투명한 우주의 바깥 회랑과 마주한다. 경회루의 내부는 3중적 공간의 비어 있는 중첩으로 혼재된 무경계가 되어 알 수 없는(妙) 무한 공간이 된다. 세 겹으로 된 직선의 평면 틀로 상징적 체계로서가 아니라, 비워서 만상을 담아낸 공간으로서 우주의 이치를 추상화 하였다.

#### 4.2. 병산서원 만대루

노자는 천지만물이 유무상생(有無相生)과 같은 의미로 허(虛)와 실(實)의 통일, 즉 ‘허실결합(虛實結合)’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들의 통일이 있어야만 비로소 천지만물이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으며, 계속 끊이지 않고 낱고 낱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하나의 훌륭한 조각 작품은 산꼭대기에서 굴러내려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각은 덩어리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자의 입장은 ‘이 덩어리를 깨뜨려서 그것으로 하여금 허와 실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소통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 적절한 어휘인 기운생동(氣韻生動)의 기(氣)는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형태 이외의 허공에 대해서도 표현하였다. 허공이 없다면 곧 기운생동을 논할 수 없으며, 곧 생명력을 잃게 된다. 또한 경(境)과 상(象)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은 상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 이외의 허공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점을 보다 가치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동양화의 여백공간을 예로 들면, 안개나 흰 구름으로 기호화된 빈 공간으로서의 여백은 이미 산수(山水)의 경험적 흔적들과의 차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여백이 무욕(無欲)이라면, 산수는 유욕(有欲)이 노니는 곳이다. 그 여백이 산수의 차연을 또한 형성케 해준다. 그러므로 그 여백(marge)은 허공이나 사이나 빈곳이거나 흰색이지만, 그것이 안개나 구름 등 다른 것을 지시하는 표지(marque)가 되기도 하고 산수와 앞마을 사이의 차연 관계의 오고 감을 맡는 행정(marche)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여백은 무위



<그림 5> 공산무인도

이무불위의 성격을 지닌다.<sup>24)</sup>

이 묵화는 최북의 공산무인도로 ‘빈산에 인적은 없으나 물 흐르고 꽃이 피네’라는 제시(提示)처럼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은 빈 모습으로 다양한 사유의 표정과 낭

23)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래픽스, 2004, p.102

24) 한국도가결학회, 앞의 책, p.300

만을 담은 모습이다.

병산서원은 배산임수의 일반서원과 달리, 앞산인 병산이 막고 있어 답답하고 급히 흐르는 강물(낙동강)로 인해 지기(地氣)가 쌓일 틈이 없는 터라고 한다. 그러나 동서재의 뒷마루와 만대루의 수평으로 긴 빈 공간은 무한공간이 되어, 그 사이로 보이는 병산을 없는 듯 비어있게 한다. 높은 누마루에선 산을 마주보고, 물을 내려다보게 하여 앞을 가로막는 높은 산을 낮게 만드는 건축이다. 또한 곡직한 기둥 위에 떠 있는 만대루의 수평적 빈공간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은 마치 공중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현대 건축이 4차원의 통시적 시간 개념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비물질적 형태를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나 다르다.

관자(管子)는 “천도(天道)는 공(空)하여 무형(無形)하다” 하였다. 건축 역시 근원적으로 유형과 동일한 허(虛)의 체계를 이룩하려 하였다. 빈 만대루, 동서재의 빈 뒷마루와 비어있는 방 그리고 입교당의 빈 마루와 빈 방까지, 유와 무의 동시적 허의 체계는 시작이 없는 허실상성(虛實相成)의 체계로, 우주와 같이 생동하는 자율적 청허(淸虛)의 체계이다. 질서로 구축하는 허와 실의 체계인 서양 건축과 달리 비어있음으로 인해 질서는 있되 구축은 없다. 공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와도 같은 불확정한 공간 개념인 허의 체계는 자연을 내부로 유입하고 실재는 암암리에 삭제하여 보이지 않는 경계의 차원까지 포용한 무한 차원을 인식하게 한다. 그것은 실재를 장식하는 형식과 같은, 수평적 수직적 크기와 질감과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sup>25)</sup>

<표 4> 병산서원 만대루의 해체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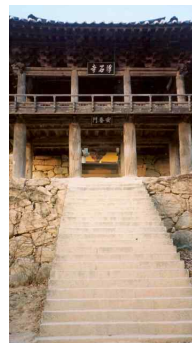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 어휘	만대루 이미지	해체적 특성
유무상생 (有無相生) -혼재된 무경계		곡직한 기둥만으로 질서는 있으나 구축은 없어 좌우로 멀리 있는 산(자연)을 건물 내부로 품는다.
대상무형 (大象無形) -무형상의 형상		위압감이 없이 사라진 듯 비어 있는 만대루
무위이무불위 (無爲而無不爲) -시·공간의 초월		수평의 빈 만대루의 공간으로 막고 있는 앞산을 없는 듯 띄우고, 좌우의 건물로 인해 막혀 있는 강물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아 무한히 흐른다.

### 4.3. 부석사 안양루

부석사 안양루는 자연 지세를 시지각 경험으로 연계시

25) 김계천, 앞의 책, pp.28~29

킨 위계적 질서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물의 의미를 변화시켜 전체를 구축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원래 일주문 터였던 천왕문을 들어서면 정교한 돌길과 장대한 석축 위의 회전문 터가 빈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 회전문터의 계단을 오르면 범종각을 중심으로 좌우와 수직적 계단식으로 층층이 펼쳐진 건물들이 저마다 우뚝 자리 잡아 유장한 화엄의 세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세계의 중심에 있는 범종루로 누하진입을 하면, 모든 건물은 일시에 사라지고 봉황산을 배경으로 무량수전과 합쳐진 안양루가 철자(凸字)형태의 건물로 크기가 배가 된다. 그러나 안양루 앞 수직 계단 앞에 서면 합하여 크고 웅대한 건물이었던 무량수전이 보이지 않아 안양루는 극락의 문으로 변화한다. 난간 아래 편액은 안양문이며 위층은 안양루라고 적혀 있듯, 형태와 함께 기능도 누와 문의 이중 역할을 하는 문 없는 문이며 극락세계 그 자체이기도 하다. 또한 안양문을 올라 무량수전 앞에 서면, 가는 기둥에 빈약한 지붕만의 건축으로 다시 변하여 안양루는 자연 앞에 선 하나의 빈 점, 즉 무형상의 형상으로 사라진다. 합하고 또한 사라지며 변화하는 해체적 형(形)이다.<sup>26)</sup>



<그림 6> 안양루 앞

대림은 모순과 같이 다른 것과의 공존을 용납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과의 상호배척을 야기하지만, 차이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서로 같지 않기에 부석사 무량수전과 안양루의 관계처럼 오히려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되는 연결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유무의 새끼 꼬기는 노자의 도덕경 제1장 끝의 ‘중묘지문(衆妙之門)’의 의미와 만나게 된다. 문(門)은 데리다의 용어를 빌리면 ‘불가능한 것들의 동거’<sup>27)</sup>나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성’, 또는 ‘불가능한 공존’<sup>28)</sup>이라고 표상될 수 있다. 문의 열(開)은 막힌 공간을 하나로 통하게 하기 때문에 두 공간의 모함·접속이고, 닫음(閉)은 열린 공간을 차단하기에 이쪽과 저쪽의 차이를 잉태시킨다.

이처럼 차이의 관계에 의해 커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대상무형(大象無形)은 허공 속에서 오묘한 현(玄)색을 보여준다. 현색은 흑색과 적색 하나로 접합함을 뜻하고, 또 음과 양이 하나에 모이는 색이다.<sup>29)</sup>

평범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도 함께 가지는 안양루는 시각적 대상에서 멀어진 건축으로 고유의 존재성이 사라진 건축이다.

26) 같은 책, p.69

27) Jacques Derrida, 앞의 책, p.63

28) 같은 책, 같은 곳

29) 노자 도덕경 1장에 대한 여길보(呂吉甫)의 주(註)



<표 5> 부석사 안양루의 해체적 특성 분석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 어휘	안양루 이미지	해체적 특성
유무상생 (有無相生) -혼재된 무경계		봉황산을 배경으로 무량수전과 합한 凸字형의 건물로 웅대하며,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주변 자연의 모습과 끊임없이 변화한다.
대상무형 (大象無形) -무형상의 형상		장대한 안양루 정면 앞에 서면 함께 붙어 있던 무량수전은 사라지고 굽은 기둥과 하늘을 덮은 지붕만이 존재한다.
무위이무불위 (無爲而無不爲) -시·공간의 초월		정면에서는 장대하였으나 후면에는 가는 기둥과 소박한 지붕으로 우주에 뜬 빈 점같이 사라지는 자유로운 모습이다.

## 5. 결론

그동안 노자철학의 도(道)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지시하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해독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데리다와 노자의 철학적 연계성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노자철학의 사유논리를 탐구하는데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이 새로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리다의 차연(差延)과 노자의 도(道)를 같은 선상에 두고 차연으로서의 도, 즉 해체적 어휘로서의 도를 연구의 중요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사상을 도출해 내려는 목표에 대한 조그만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와 무가 서로 꼬여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은 어떤 특정하고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전이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혼재된 무경계로 서로가 계속 이쪽저쪽을 넘나드는 차연적 형식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형식의 공간은 서로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변화하고 사라진다. 또한 각기 개별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여 혼재하는 무경계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둘째, 대상(大象)의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모습(無狀之狀)’, ‘형상 없는 형상(無物之象)’과 같다. 이는 빈 공간과 흔적이 동거하는 이중긍정의 무형상의 형상으로 스스로 아무 것도 아니면서도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내는 비(非)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형식이다.

셋째, 도(道)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즉 항상하는 것이 없지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시·공간이 초월한 형식은 유위인 동시에 무위로써, 유위도 극복하고 무위조차 넘어 실체가 있으나 변화하며 이어지는 무시무공(無時無空)의 상대적 무한 공간이 된다. 이러한 공간은 어떤 체계도 가치도 없는 비개념적인 모습으로 특정한 형식으로 말 할 수 없는 자유로운 활발발(活潑潑)한 형식을 추구한다.

이상의 노자의 해체적 공간조형사상을 사례분석을 통한 전통공간의 해체적 특성은 공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력을 부여하고, 자연과 우주를 공간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잠재적 가능성은 무한한 공간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다양한 공간의 유희를 제공하고 공간 인식에 대한 새로움을 부여한다.

본 연구는 동양의 대표적 전통 사상인 노자를 해체적 관점으로 보는 배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본적인 개념만을 다룬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보다 심도 있는 동, 서양 사상에 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출된 추상적인 개념의 해체적 공간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공간 조형요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통 공간의 해석에 있어 보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2. Jacques Derrida, 해체, 김보현 역, 초판, 문예출판사, 1996
3. 김개천, 명목의 건축, 초판, 안그라픽스, 2004
4. 김개천·이찬·김지은, 노자의 공간조형사상, 초판, 국민대학교출판부, 2009
5. 김형효, 데리다와 노장의 독법, 초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6.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초판, 민음사, 1993
7. 김형효, 사유나그네, 초판, 소나무, 2010
8. 이강수, 노자와 장자, 3판, 길, 2006
9.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3판, 교보문고, 1991
10.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4판, 소나무, 2005
11. 한국도가철학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2판, 예문서원, 2002
12. 김상래, J.Derrida의 해체주의와 노장사유의 독법(1),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제18호, 1999
13. 박원재, 도와 차연-노자와 데리다의 비교연구, 한국도가철학회도가철학 2집, 2000
14. 오열근, 포스트모던조직론과 노자의 도덕경 : 해체(차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제26호, 2010.6
15. 한귀관, 데리다로 노자읽기, 칼빈대학교, 칼빈논단 제29호, 2009

[논문접수 : 2012. 02. 29]  
[1차 심사 : 2012. 03. 15]  
[게재확정 : 2012. 04. 06]